



평화공원 ‘국화 전시회’ 성황리 마쳐

시화전 사진전도 함께 열려 주민들 ‘가을 정취 만끽’

주민기자 현장을 가다

지난달 29일부터 13일간 평화공원 일원에서 국화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포인세티아 등 만여 점의 국화와 초화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국화꽃 잔치가 열렸다. 평화공원 중앙수반을 중심으로 입구의 아치,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5층탑, 10층탑, 다보탑, 하울레로 4회째를 맞는 평화공원

국화전시회는 동래원예고등학교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국화는 물론 석재, 포인세티아 등 만여 점의 국화와 초화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국화꽃 잔치가 열렸다. 평화공원 중앙수반을 중심으로 입구의 아치,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5층탑, 10층탑, 다보탑, 하울레로 4회째를 맞는 평화공원

황소와 송아지 등 각종 모양, 가지각색의 국화로 만든 조형물 앞에서 주민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형물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포토 존이었다.

평화공원을 비롯해 문화회관, 박물관, 유엔기념공원, 조각공원, 대연수목원이 하나의 문화·휴식벨트

로 이루어져 있고 평화공원이 도심에 자리 잡은 근린공원으로서 접근성이 용이해 국화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인기가 높아 아이들의 정서순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장학습 나온 용호초등학교 1학년2반 박건우 양은 “너무 예쁘고 멋지고 신기해요, 국화로 탑도 만들 수 있고 엄마코끼리 아기코끼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라고 말하자 같은 반 김민석 군은 “저는 10층탑이 제일 멋졌어요”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군데군데 예쁜 바람개비들이 가을바람을 타고 있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주중에는 이웃과 함께 나온 주민들, 학생, 원생들이 주말에는 연인, 가족단위의 방문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주말에는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주민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지루함을 참지 못해 사진찍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주민 박무자(61·감만2동)씨는 “이웃들과 함께 해마다

국화전시회를 찾는다”며 “올해는 색다른 행사도 많고 무엇보다 꽃이 풍성해 참 좋네요, 우리 남구의 정례행사로 자리 잡아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1명의 3~4세 유아들을 데리고 야외수업을 나온 장영수(44.용호동 송림어린이집)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 감사했다.

이번 국화전시회는 시화전과 사진전도 함께 열려 더욱 눈길을 끌었다. 국화하면 연상되는 시 한편, 국화 옆에서 남구문인회의 글솜씨가 더 빛이 났다. 더불어 한국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가 독도에 사는 꽃과 새, 독도의 모습, 독도 어부들의 일상을 담은 독도사진전을 열어 평화공원에서 국토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외에 신라차문화원의 국화차 시연회, 토끼어리 만들기, 생태하천 탐방, 숲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열려 볼거리, 즐길거리들로 연일 성황을 이뤘다.

한편 국화전시회 소식은 첫날부터 일간지와 방송매체를 통해 소개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예감케 했다.

홍순문 공원복지 과장은 “올해 열린 국화전시회는 행사 규모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연일 행사장을 찾아준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영만·이두래 기자

감만창의문화촌 20일 개관

부산문화재단, 감만사회복지관 등 동지 틀어



감만창의문화촌이 지난 20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감만창의문화촌이 지난 20일 남구청장과 서용고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관식을 갖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높이 올렸다.

이번에 문을 연 감만창의문화촌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문화예술 창작공간이다. 동전초등학교가 이전하고 폐교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친화형 복지시설과 창조형 문화예술 교육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파워 시책사업 1호인 감만창의문화촌은 전체부지 8,453㎡, 연면적 6257㎡ 규모로 완공됐다. 본관에는 부산문화재단이 해운대에서 이전, 새동지를 틀었고 3층은 문화예술 교육장, 커뮤니티 홀, 4·5층은 다목적홀과 입주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들어섰다. 별관에는 감만사회복지관이 이전했으며 소공원과 부속건물 등을 갖췄다.

감만창의문화촌은 개관 전시 행사로 동전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스텝을 이용한 문화작품을 1층 북카페와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다. ‘동전초등학교와 나’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관화전시회는 옛 학교에서 뛰놀던 추억을 새긴 5·6학년 학생들의 솜씨로 1백40여 점의 작품이 연달라 전시된다.

입주 작가로 선정된 예술가들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로 이들은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활동경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소통,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선정되었다. 감만창의문화촌은 12월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맞는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두래 기자

우암로 대형차량 통행

내달 1일부터 전면 통제

남구와 부산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8톤 이상 대형차량의 우암로 통행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암로 감만창의문화촌 아파트~감만사거리에 이르는 1km 구간의 대형차량 통행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전면 통제된다.

해당 통행 제한 구간을 운행하다 적발된 8톤 이상 대형차량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복지희망나눔이’ 탄생

200여 일자리 창출… 부산국제금융단지 용역사업 참여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적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복지희망나눔이’ 발기인 대회가 지난 8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남구청장과 김정훈 국회의원, 최문섭 복지희망나눔이 설립준비위원장, 임주기관 대표,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희망나눔이’는 김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지역 이천 공공기관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복지희망나눔이는 부산국제금융단지(BIFC)의 미화과 안내, 주차, 보안 등 각종 용역사업을 맡게 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기반을 둔 소비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 등 200여 기관과 단체, 개인이 참여하게 된다.

금융단지 용역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아니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



전국 최초의 지역 사회적협동조합 ‘복지희망나눔이’ 발기인 대회가 지난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원’이 목적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 총 200여명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에 대한 수익은 배분위원회를 통해 100% 사회 환원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은

물론 자원봉사자 조합원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과 지역복지단체의 연합체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환원에 참여하는 우수 모델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607-4294

남구 문화생태해설사 양성

320명 대상 교육, 내년부터 오륙도 등에서 활동

남구는 지난달 문을 연 오륙도호보관 등에서 활동할 문화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는 지난 9월부터 기러기문화원과 경성대 평생교육원 등 관내 5개 기관에 그림책 전문가 과정, 자연생태안내자 양성과정 등을 개설, 운영 하고 있다. 현재 교육 중인 130명이 남구의 문화와 생태를 익히고 있다. 특히 기러기문화원 과정은 문화생태해설사 기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오륙도 남구 ‘재미난 이야기 숲’ 실버 스토리텔링 과정을 추가로 교육 중에 있다.

남구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기러기문화원과 (사)부산스토리텔링협

회 등에서 문화생태해설사 기본과정 등을 개설해 19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남구는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오륙도와 스카이크, 관광안내소 등 해파랑길을 중심으로 현장 위주의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을 마친 문화생태해설사들은 내년 1월부터 이기대관광안내소와 동생말, 오륙도, 신선대 일대 등 남구의 주요 관광지에서 해파랑길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문화생태해설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애郷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607-4512

행정사무감사 29일까지 실시 <2편>

보건소, 암치료비 지원 <4편>

문화도시 남구 위상 높여 <5편>

한국거래소 김치 전달 <6편>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090331-중-12545호

보석처럼 빛나는 자연속 명품병원

GRAND NATURE HOSPITAL

그랜드 자연양병원

적정성 평가 1등급

“최고가 아니면 비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한방 협진하에 24H 의료·간호·간병서비스

문화가 있는 병원

화 미술심리치료

목 찾아가는 노래방

매일 정기 음악회 야외 음악회

이 사진은 실제 병원 전경입니다

병원장 나용승 의학박사 (現 부산의대외교수, 부산의과대학후, 동인고후) **황령터널 500m 전방**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 355-14 | www.grandnature.kr | 보호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병원

상 담 의 051) 612. 0075